



어린이도 피켓행진 “전쟁반대” “자위대 해외파병반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주부와 어린이 등 약 3백명의 일본 시민들이 7일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도쿄 시내를 행진하고 있다.

〈도쿄=AP 연합〉

9.12.8

일본 전쟁반대 집회 줄이어

태평양전쟁 개전50돌...파병추진도 규탄

태평양전쟁 개전 50돌을 하루 앞둔 7일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일본 각지에서 열렸다.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서는 피폭자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8 부전맹세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이실근(50) 한인피폭자협회 회장은 일본 국회에서 심의중인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에 대해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정의의 전쟁이라고 되풀이 강조했었다”면서 “PKO가 평화적 공헌이라고 주장하는 미야자와 수상의 말과 다른 점이 무엇이나”고 역설했다.

피폭자 대표 야다니(58·히로시마현 사에키군)는 “강제연행된 수만명의 한인들이 히로시마의 원폭으로 숨졌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그들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12월8일을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도쿄 지요다구 중앙대기념관에서는 1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전쟁 책임과 평화운동’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일본교육회관에서도 3백여명의 시민과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전 50주년을 생각하는 시민의 집회’가 열렸다.

또 시부야의 야마테교회에서는 도이 전 사회당 위원장과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 등 3백여명의 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위대 파병 PKO법안을 허용하지 않는 여인들의 집회’가 열려 “해외파병 추진은 군사력으로 국제적인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전쟁이전 시기의 발상”이라며 정부와 집권 자민당의 PKO법 성립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도쿄=연합〉